

##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모델 연구

### A study on a cultural application model for reinforcing the placeness of idle spaces

이민용<sup>1</sup>, 김연희<sup>2\*</sup>

Min-Yong Lee<sup>1</sup>, Yeon-Hee Kim<sup>2\*</sup>

#### 요약

도시변화의 산물인 유휴공간은 활용 가치가 높다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그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획일화된 개발과 활용으로 장소성이 결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여된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문헌 고찰과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유휴공간, 장소성 강화, 문화적 활용에 관해 탐색하고, 근거이론에 기반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중심형',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형'의 2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에 기반한 전략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휴공간을 개발을 위한 수단이 아닌 고유한 장소로써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유휴공간을 역사 문화자원이나, 사람들과 장소 간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 관계가 생성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었다.

핵심어 : 유휴공간, 장소성 강화, 문화적 활용, 근거이론

#### Abstract

Idle space, a product of urban change, was actively utilized as the aspect of high utilization value was emphasized, but the lack of placeness occurred due to uniform development and us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laceness of the idle space, and as a way to find out cultural utilization.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to explore idle space, reinforcement of placeness and cultural use, and to develop a model based on grounded theory. As a result, it was derived two of 'Type centered on experience and memory of the place' and 'Type focused on strengthening attachment to the place'. In addition, the result was obtained that through a strategy based on this type, the uniqueness and identity of the region could be form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could be strengthened. Based on th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laceness of the idle spac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dle space as a unique place rather than a means for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it

1 Department of Art & Museum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minyong818@hanmail.net

2 Department of Art & Museum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tofree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 이 논문은 제1 저자의 2020년도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Received(February 16, 2022), Review Result(1st: March 4, 2022, 2nd: April 15, 2022), Accepted(June 10, 2022), Published(June 30, 2022)



© 2022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as found that idle spaces should be used a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r for intimate emotional ties between people and places. In addition, it was implied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form the uniqueness and identity of the region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Keyword : Idle Space, Reinforcement of Placeness, Cultural Use, Ground Theory

## 1. 서론

유희공간은 도시변화의 산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발생 초기에는 유희공간을 지역 환경의 이미지를 저하하는 방치된 공간으로 인식하였으나, 점차 활용 가치가 높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유희공간의 활용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던 유희공간은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유희공간을 여전히 쓸모없는 공간으로 인식하거나 물리적 개발중심, 경제적 논리에 치중한 개발, 일시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획일화된 활용에서 비롯하였다. 따라서 유희공간 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희공간의 장소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유희공간을 문화적 활용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유희공간

#### 2.1.1 유희공간의 개념과 발생

유희공간의 어원적 의미는 ‘놀다’라는 뜻을 가진 ‘유(遊)’의 한자와 ‘쉬다’라는 뜻을 가진 ‘휴(休)’의 한자가 결합 되어 만들어진 형태이다.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쓰지 아니하고 놀리어 비어있는 곳’을 의미한다 [1].

유희공간의 발생은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 환경의 변화 과정과 흐름을 같이한다.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팽창하던 근대의 도시들은 불량 주거, 교통난,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탈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구조의 재편을 겪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 새로운 기술과 생산양식이 요구되면서 주요 산업이 제조업에서 정보,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였고, 그로 인해 도시의 공업 지역은 쇠퇴하게 되었다. 이는 유희공간이 대거 발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 2.1.2 유희공간의 유형

유희공간의 유형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능을 상실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발생한 유희공간으로 산업의 발전과 쇠퇴, 도심 공동화 등 도시를 구성하는 환경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유형이다. 둘째, 기능의 부재로 발생한 유희공간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특

정한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자투리 공간이다. 셋째, 항상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유휴공간의 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래시장이 대표적인 예로 한시적으로 이용되어 미개장일에는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는 공간이다.

### 2.1.3 유휴공간의 활용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 유휴공간은 낙후된 도시의 재생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주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공동화와 쇠퇴 현상 및 신도시와 구도시 간 격차 심화, 도시 경쟁력 감소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지역 쇠퇴로 인해 부족한 복지시설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되어 버려지거나 방치된 학교, 빈집, 행정시설 등을 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주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기반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유휴공간 재생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 [3][4].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은 미술관과 박물관, 창작 스튜디오, 공연장 등 예술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과 광장, 커뮤니티센터 등 일상적인 생활환경 측면에서의 활용 또한 포괄한다 [1]. 그 결과 산업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 및 문화공간, 예술창작공간, 공연장, 전시장, 군사시설 이전 적지와 기반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도시공원으로의 유휴공간 활용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3].

## 2.2 유휴공간의 장소성

### 2.2.1 장소성

장소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장소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성격’이다 [5]. 국토연구원의 국토용어해설에서 장소성은 체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공간인 장소의 본질적 특성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장소가 지니는 의미이며, 인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6]. 따라서 장소가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얻은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 특성을 장소성이라 한다 [7].

### 2.2.2 장소성 구성요소

지리학과 건축학에서 대표적으로 장소성을 연구한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장소는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경험되지만, 식별 가능한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를 장소성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보았다 [8]. 장소성의 구성에 있어 렐프는 저서 「장소와 장소상실(1976)」에서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 의미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물리적 환경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장소를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요소이다. 둘째, 인간 활동은 물리적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인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특정한 목적의 활동이나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장소에 대한 의미는 물리적 환경을 경험하는 인간이 그들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이입하는지, 또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관련된다 [9].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적 특성, 즉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10].

### 2.2.3 장소성 강화

유휴공간의 활용에 있어 장소성 강화는 쇠퇴한 공간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여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장소성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장소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볼 수 있다.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소성을 형성되는데, 장소성의 강화에 있어서는 물리적 환경 자체보다 사람들이 장소를 경험하면서 부여하는 의미 혹은 장소와 방문객 간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 [11]. 즉, 장소성 구성요소 중 의미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장소에 관한 판단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장소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미 요소가 생성되었음을 뜻하는 장소에 대한 경험, 기억 그리고 애착이 형성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 모델

### 3.1 연구방법론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의 필요성은 그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인 틀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화적 활용 측면에 관한 반복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적합한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기에 질적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선행연구 등에서 검증된 근거이론에 기반한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자료의 수집과 취합, 해석을 통해 발견한 개념을 추상화함으로써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이다 [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13].

###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자료는 관련 문헌 고찰과 전문가 인터뷰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문헌 고찰을 바

탕으로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장소성에 관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근거이론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총 3단계에서 5회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방식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접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방식(인터넷 웹이나 ZOOM)을 주로 채택하였고,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내용에 따라서 1:1 방식의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방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였다.

### 3.3 분석결과

#### 3.3.1 개방코딩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바탕으로 원자료에서 의미상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개방 코딩을 시행하였다. 원자료에서 발견한 개념을 11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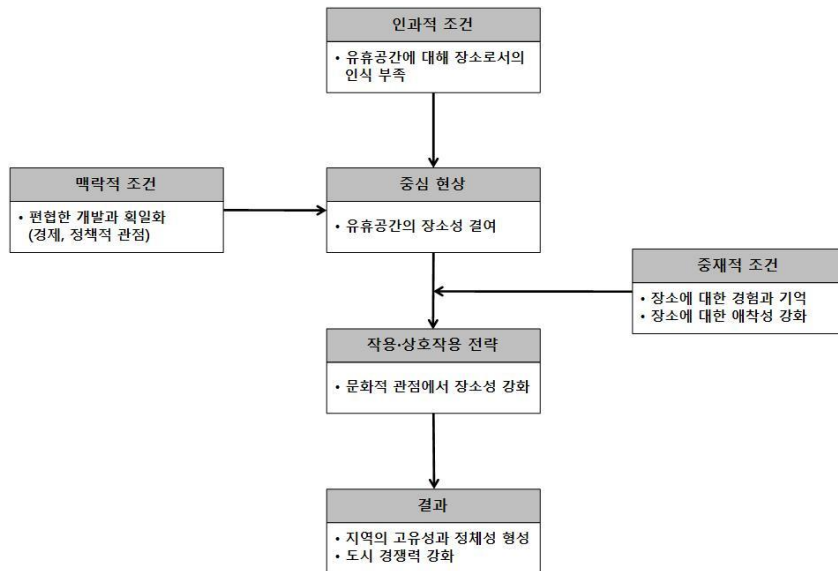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유희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에 대한 개념, 하위범주, 범주 목록  
[Table 1] A list of concepts, sub-categories, and categories on cultural use to strengthen the placeness of idle spaces among research participants

개념	하위범주	범주
최근 우리나라 또한 정부가 개입하는 공공적 측면에서 유희공간을 활발히 활용하여 지역과 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유희공간의 재개발	유희공간과 장소성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며 지역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다.		
수명이 다하고 더딘 발전으로 혹은 더욱 현대적인 시설의 형성으로 사라져 버린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		
유희공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슬럼화의 원인이 되어 철거 및 재개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희공간에 대해 장소로서 인식 부족	
유희공간은 죽은 공간, 쓸모없는 공간이란 인식이 있다.		
유희공간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재개발되는 현실이다.		
유희공간의 활용은 낙후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공간의 가치를 높이지만, 오히려 도시의 모습이 획일화될 수 있고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사라진다.	유희공간 장소성의 결여	
현재의 유희공간은 경제적 관점으로만 개발하는 편협함이 있다. 정책이 미흡하기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유희공간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개발중심의 원인이 크다. 유희공간 개발 시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이 문제다. 과거와의 단절이 문제가 된다.		
유희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한 공간의 재탄생인 것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장소성 강화	문화적 관점의 장소성
문화적 가치로 인해 미적, 경제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써 정체성을 구축한 공간이 된다.		

우범지역으로 기억되는 고가도로 밑, 지하상가의 빈 점포,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은 시골의 간이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양한 유휴공간을 카페, 예술가의 작업실,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문화가 활기를 띠게 되면 건축물의 재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이 가능할 수 있다.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를 재창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에 초점을 맞춘 도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도시 경쟁력 강화	도시의 경쟁력
구시가지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은 유휴공간 재생에 이용할 수 있고, 이는 도시의 정체성 회복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창조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기억되어 그들의 삶을 떳떳하게 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역사문화물이 많은 도시가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형성	
유휴공간의 활용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은 가장 지역적이며 지역 문화와 이야기가 담긴 특화된 마을 재생이다.		
장소는 문화 관광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문화, 경제, 역사, 지역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 중요합니다.		
인간은 특정 장소를 통해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장소 중심의 독창적 문화콘텐츠 생산은 현재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편협한 개발과 획일화	개발과 정책의 문제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를 만들지 못해 되려 경제적 효과까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재개발과정에서 너무 많은 공동체와 지역 자산이 없어졌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정책 추진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개발이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것이며, 획일화된 도시개발과는 다른 도시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발자, 사용자 등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급할 수 있는 시설과 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공간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휴공간의 활용 과정에서 사람들은 많은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생기고 자산이 축적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장소의 활용방안
새로운 공간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방식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미체로서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터(땅과 건물도 해당)에 대한 기억과 서사(이야기)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유휴공간은 중요한 도시 기억 요소이다.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	
도심 공원을 산책하다 이곳을 들릴 수 있다면 과거의 장소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의 의미를 더 깊게 할 것이다.		
발전소나 공장 같은 대규모 유휴공간에 문화공간과 공원을 조성하면 도시 여메니티를 증진시킬 수 있다.		
빈 공간을 채우려면 지역사회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의 거점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티 시민참여	
사람들이 만나서 교감하고 화합하며, 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문화 욕구가 충족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탄생하여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 3.3.2 축코딩

개방 코딩에서 도출된 11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 중에서 의미 있는 범주를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배열하였다.



[그림 1] 연구 참여자들의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 연구모형

[Fig. 1] A research model for cultural utilization to strengthen the placeness of the idle spac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은 ‘유휴공간에 대해 장소로서의 인식 부족’이고, 이러한 인과적 조건이 중심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맥락적 조건으로는 ‘경제, 정책적 관점의 편협한 개발과 획일화’이다. 중심 현상에 개입하게 되는 중재적 조건은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중심 현상은 ‘유휴공간의 장소성 결여’이며, 중재적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문화적 관점의 장소성 강화’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결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형성’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 3.3.3 선택코딩

먼저,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과 관련이 있는 중심 현상 범주인 ‘유휴공간의 장소성 결여’와 연결되면서 보다 발전적인 설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범주는 ‘유휴공간의 활용에 있어 문화적 관점에서 장소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하기’로 보았다.

다음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 차원에서 유휴공간의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적 활용 유형

을 2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2가지 유형은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중심형,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형이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중재적 조건 기반의 문화적 활용모델

[Table 2] Interventional Condition-based Cultural Utilization Model

구분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중심형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형
인과적 조건	유희공간에 대해 장소로서의 인식 부족(없음)	유희공간에 대해 장소로서의 인식 부족(없음)
맥락적 조건	편협한 개발과 획일화(강함)	편협한 개발과 획일화(강함)
중심 현상	유희공간의 장소성 결여(강함)	유희공간의 장소성 결여(강함)
작용·상호작용 전략	문화적 관점에서 장소성 강화(있음)	문화적 관점에서 장소성 강화(있음)
결과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형성(강함) 도시 경쟁력 강화(강함)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형성(강함) 도시 경쟁력 강화(강함)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중심형’이란 유희공간에 대해 장소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편협한 개발과 획일화로 인해 유희공간의 장소성 결여 현상이 나타나며, 문화적 관점에서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희공간의 활용에 있어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활용모델이다. 이 모델은 유희공간의 활용에 있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미체로서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기존 공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장소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의 흔적을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익숙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형’이란 유희공간에 대해 장소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편협한 개발과 획일화로 인해 유희공간의 장소성 결여 현상이 나타나며, 문화적 관점에서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희공간의 활용에 있어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에 중점을 둔 문화적 활용모델이다. 이 모델은 유희공간의 활용을 통해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사람들과 장소가 맺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중요시하며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친밀한 장소로의 변용이 필요하며, 장소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 4. 결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첫째, 현재 유희공간의 장소성 결여는 편협한 개발과 획일화된 경제 및 정책적 관점의 문제와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희공간의 활용에 있어 장소성 결여를 극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형성되고 도시 경



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모델에 있어서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중심형’,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형’의 중재적 조건에 기반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휴공간의 장소성 결여를 개선하기 위해 유휴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모델로 도출한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중심형’을 기반으로 유휴공간을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하여 활용해야 한다. 셋째,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모델로 도출한 ‘장소에 대한 애착성 강화형’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장소가 맺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 관계가 생성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유휴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한 문화적 활용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References

- [1] Y. J. Kim, “A Study on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Idle Space Revitalization”,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21, February 2009, pp. 185-207, doi: 10.16937/jcp..21.200901.185
- [2] D. J. Lee, “A Study on Constructing the Cultural Spaces by Recycling a Vacant Space”,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Cultural Programming, Administration & Theory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4.
- [3] J. W. Choi, “A Study on Local Revitalization Measures through Underused Space Regeneration from an Urban Regeneration Perspective”, Doctoral thesis, Dept. of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Planning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 [4] H. J. Kim, “A Study on the Planning Methods for Adaptive Reuse of Abandoned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3.
- [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Open Dictionary”, opendict.korean.go.kr,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129742&viewType=confirm](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129742&viewType=confirm), (accessed November 2, 2020).
- [6]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Electronic library, glossary of national terms”, library.krihs.re.kr, [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396?os=asc&countPerPage=10&dateTo=&searchKey=장소성&searchKind=title&oi=&dateFrom=&](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396?os=asc&countPerPage=10&dateTo=&searchKey=장소성&searchKind=title&oi=&dateFrom=&), (accessed November 18, 2020).
- [7] J. Y. Uhr, H. K. Yuh, “A Study on Place Value on the Notion Place”,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 45, no. 6, November 2010, pp. 21-34.
- [8] E.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Korean Edition), Nonhyeong, 2005.
- [9] H. Y.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Formative Factors of Placeness on Place Attachment, the Value Perception and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s in Museum- A Case of Museums in Jeong-dong -”,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3.

- [10] H. Oh, "Effects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Focused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te of Jungangdong, Cheongju-",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 Urban & Chem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7.
- [11] H. Yoon, H. J. Yun, "Cognition of Sense of Place and Place Choice of Urban Regeneration Space's Visitors: Focused on 20s and 30s Visitors with no Social Memorie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 23, no. 3, May 2019, pp. 659-674, doi: 10.18604/tmro.2019.23.3.32.
- [12] D. S. Lee, Y. C. Kim, "An Inquiry on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an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ed Theory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20, no. 2, May 2012, pp 1-26.
- [13] H. J. Lee,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s Work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8, no. 4, November 2016, pp. 25-51, doi: 10.20970/kasw.2016.68.4.002.